

거세지는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리퍼트 대사, 기업규제 완화 등 FTA 이행 '강한 톤' 압박... 대선 국면 美 통상 압박 이어갈 듯

미국이 한국의 규제 문제 등을 강한 톤으로 지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을 이틀 앞두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석상에서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며 한미 FTA 이슈를 크게 부각시켰다.

일각에서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미국이 내부 정치용으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들 것이라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 경제·무역 관계와 향후 협력 및 발전 방안' 조찬 강연에 참석해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규제들은 자유무역환경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은 최고 수준"이라며 "양국이 지속적인 공동 번영을 보장하려면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기업규제 완화와 법률시장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좌석 넓이 등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리퍼트 대사는 "법률서비스 개방 등 한미 FTA의 남은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법률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한국 변호사의 일자리와 소비자의 선택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등장한 이후 미국 내에서는 자국민의



창립 20주년 예금보험공사 1일 오후 서울 중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창립20주년 축하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익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큰 지지를 얻고 있다.

통상정책에도 이같은 기조가 반영되며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과 불만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미국 관료와 정치인들은 현 한미 FTA 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외국 로펌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올해 초 국회를 두 차례나 방문했다. 지난 3월에는 오리건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국의 FTA 이행 수준을 지적하며 이를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천준호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오늘 리퍼트 대사의 발언에 특별하거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양국 간 이슈를 미국측 시각에서 정리한 것 정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내부 정치를 위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현재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는 부분은 법률과 의약품 시장 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FTA 합의 취지에 비해 우리의 이행 정도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이는 양국의 시스템 차이에서 오는 문제인데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연구실장은 "당분간 미국의 이익 제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관되고 투명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합리적인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시장 개방 논의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수 기자

'알뜰폰 쓰고 티머니 쌓고'

'M티머니 요금제' 출시

저렴한 알뜰폰을 쓰면서 티머니 포인트도 쌓는 요금제가 나왔다. 티머니는 대중교통과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kt M모바일은 'M 티머니 요금제'를 1일 선보였다. M 티머니 요금제는 총 3종(M 티머니19·M 티머니28·M 티머니34)으로 금액에 따라 매월 4000~1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포인트는 매달 모바일티머니 앱에 쌓이며 적립 시점에서 5년 간 사용 가능하다. /안진수 기자

이달 M 티머니 요금제에 가입하면 LTE데이터 512MB를 8월부터 매달 추가로 받고, 모바일티머니로 이용한 대중교통비 잔액(최대 5만원)을 티머니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선착순 가입자 2000명은 2000포인트를 추가로 받는다.

강현택 한국스마트카드 페이지먼트플랫폼 부문장은 "경기 불황에 고객들의 교통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자 kt M모바일과 뜻을 모으게 됐다"며 "실용적인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혜택 강화에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한국 토종 앱장터 '원스토어' 출범

이통 3사·네이버 운영... 모바일 게임 특화로 애플·구글에 도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공동 운영하는 앱장터 '원스토어'가 6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대항하기 위한 포석이다.

애플과 구글은 국내 앱장터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유플러스 스토어', 네이버는 '네이버 앱스토어'란 명칭의 자체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일자로 모두 '원스토어' 브랜드로 통합된다. 각자 앱장터를 운영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통합 운영은 SK텔레콤의 자회사 원스토어에서 맡는다. 지난 3월 SK텔레콤은 자회사 SK플래닛에서 앱·콘텐츠 마케팅 사업부를 분리해 각각 별도법인 '원스토어'와 'SK 테크엑스'로 출범시켰다.

원스토어는 기존 앱장터의 구매내역을 승계하며 특정 회사가 개별 제공하던 할인쿠폰, 포인트 적립, 캐시지급 혜택을 전체 고객으로 확대한다.

또한 네이버 연동을 통해 원스토어 콘텐츠를 손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 원스토어는 이동통신

고객뿐 아니라 네이버ID 로그인 제도도 도입한다.

원스토어는 토종 IT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에 대항해 내놓는 연합 앱장터다. 이합집산된 기술력과 서비스 노하우를 극대화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처럼 앱 업로드 수료를 30%로 가져갈 계획이라 차별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에 익숙해진 점도 원스토어의 한계다.

원스토어는 모바일 게임 유통에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SK텔레콤 T스토어와 네이버 앱스토어 등은 모바일 게임 단독 출시와 이벤트로 일정 수준의 이용자를 확보해왔다.

이에 따라 원스토어는 중소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베타 게임존'과 '인디 게임존'을 운영한다. 베타 게임존은 게임 출시 전에 시범 테스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디 게임존은 중소 자본으로 제작된 게임의 원스토어 노출과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원스토어는 원스토어 출범 안착과 콘텐츠 개발자 유인을 위해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한다. /안진수 기자

수입보다 수출 더 급감 '불황형 흑자' 마저 위협

4월 경상수지 흑자 33억 달러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 급감... 경기 둔화 우려

4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나마 지금까지 '불황형 흑자' 이긴 했어도, 지난 2012년 3월 이후 4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높은 수준의 흑자 규모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3억7000만달러로

2014년 1월(18억7000만달러) 이후 2년 3개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월 100억9000만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흑자 폭이 급격히 줄어든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결산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 등으로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 일시적인 요인이 있지만 수출 부진세가 지속된 영향도 크다.

4월 수출은 403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8월(-20.8%) 이래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

을 나타냈다. 수입 감소율(18.7%)보다도 더 크게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전월 124억5000만달러에서 95억6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수출 둔화세는 2012년부터 추축해지기 시작하던데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2014년 7월부터는 아예 1년9개월째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4월 수출이 안 좋았던 이유는 디스플레이 패널(-37.0%), 가전제품(-25.0%), 승용차(-18.3%) 등의 통관 수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더욱이 선박의 무통관 수출 실적이 내렸던

영향도 작음했다. 선박 인도분을 기준으로 하는 통관 수출에서는 선박이 상승했지만, 경상수지 통계에서는 선박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선박 수출이 마이너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비·생산 실적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됐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줄어 석달 만에 감소 전환됐고,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0.5% 줄었다. 기업 구조조정까지 본격화되면 실물경기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수출 감소폭이 커졌다"며 "최근 수출을 비롯해 소비, 생산 등 다른 경제지표들도 안 좋아지고 있어 경기 회복을 바라는 기대 심리가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금융소비자단체 "생보사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에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시민사회가 압박에 나섰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일 서울 삼

성생명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살자에게 보험금 지급해 논란은 생보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